

5·18 40주년 '민중畫, 민주花' 전
은암미술관, 17일~5월18일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소장품 전시
1981~2000년 민중미술작가 18명 작품 25점
송필용·한희원·하성흡 등 포함



▶김상윤 고문이 1994년 자신의 두번째 소장작이 된 송필용 작가의 '땅의 역사-남녘의 땅'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아시아문화전당 주요 콘텐츠
'채널 ACC'로 보세요



아시아문화전당 주요 콘텐츠를 '채널 ACC'로 본다.

아시아문화원(ACI)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공연과 전시, 강좌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채널 ACC' 운영에 들어갔다.

'채널 ACC'는 아카이브 소장 영상자료를 선별 재구성해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로, 아시아문화원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 시설 휴관 등 문화 및 여가 활동에 제약이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했다.

채널 ACC는 그동안 문화전당에서 진행했던 강좌를 비롯 공연·전시 등 주요 콘텐츠 기록영상과 한국교육방송공사·아태무형유산센터와 공동제작한 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다큐멘터리, 우유국 문화전당 설계 건축가 인터뷰 등 다양한 영상을 제공한다. 아울러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의 공유, 창조적 활용을 위해 문화전당이 구축한 기록보존 외에도 문화자원 수집과 정리, 보존 및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 같은 서비스는 문화자원(아시아문화 주제별 컬렉션과 문화전당 콘텐츠 기록물)이 연구 창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문화전당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PC와 휴대전화 등 모바일 환경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막 삽입을 통해 콘텐츠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아시아문화원은 그동안 정리와 보존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해 '채널 ACC'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채널 ACC'를 통해 제공하는 영상 수를 늘리는 한편 내년 정식운영을 위해 온라인 환경에서 최적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대와 호흡하는 작품... 울림 오래갔으면”

“이 작품이 담양 그의 작업실 벽에 걸려 있는 걸 봤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그림이 나에게 강하게 육박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지하의 시 '황토길'이 바로 떠올랐어요. 황토길의 선연한 붉은 빛과 투박함이 그대로 보였거든요.”

그는 26년 전인 1994년 송필용의 '땅의 역사-남녘의 땅'을 처음 만났을 때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듯했다. '황토길'에 선연한 핏자욱 따라 나는 간다로 시작되는 시 '황토길'의 한 대목을 읊으며 그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다. 1994년, 일면식이 없던 송필용 작가에게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전주야구배경리에서 개인전이 잡혔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지 묻는 전화였다. 몇년 전 프랑스 살롱 드 도르네에 참가한 그의 이력을 듣고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라 일단 그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남녘의 땅'을 만난 그는 흔쾌히 전시 준비를 지원했고, 작품을 소장하게 됐다.

은암미술관 기획전으로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민중畫, 민주花 (17일~5월18) 전은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소장품으로 꾸민 '광주민중미술전'이라 할만하다. 전시작은 80여점의 민중미술 계열 소장품 중 지역 작가들이 가장 의미있게 활동했던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제작된, 8명의 작가의 25점을 김 고문이 가려 뽑은 것으로 도록에는 80여점을 모두 실었다. 김 고문의 전체 소장품은 서화 작품 등을 제외하고 300여점쯤 된다.

13일 전시장에서 그에게 작품에 담긴 스토리를 들으며 그림을 감상했다.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삶의 풍광을 담은 작가들의 작품에는 '우리 시대'가 오롯이 담겨 있다. 오월 광주의 이야기도 있고, 묵묵히 살아가는 민초들의 건장한 삶도 있다. 작품 각각에

는 그의 '사연'과 함께 작가와 나는 '이야기'가 들어 있어 흥미로웠다. 이미지로만 접했던 몇몇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고, 무엇보다 전시장을 찾는 작가들 본인이 가장 감회에 젖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1980년 5월 윤상원과 녹두서점을 운영했던 그는 17일 505보안대로 끌려갔다. 이후 아내, 처제, 남동생, 여동생까지 5명이 체포되면서 아버지가 서점을 지켜야 했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아버지는 현대 김한영을 찾아가 수목 배우며 마음을 다스렸고, 세월이 흘러 사업체를 운영하던 김 고문은 아버지를 위해 현대의 그림을 사기 시작하며 예술의 거리에서 그림과 만났다.

녹두서점에서 팔던 책에서 오윤의 판화 작품을 보고 '미술을 통해 시대정신을 보여줄 수 있음'을 어렵게 알았다. 그는 홍성담의 5월 판화집 '새벽' 출간에도 관여했다. 전남대 이태호 교수와의 만남은 그에게 큰 전환점이었다. 이 교수의 '한국미술사' 강의를 들으며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한국의 미' 전집 24권을 독파하기도 했다. 10년 넘게 이 교수와 문화유산담사를 다니며 많은 민중미술 작가들을 만났고, 본격적인 작품 구입도 그가 보길 정한 한희원 작가의 첫 개인전이 시작이었다. 그는 당시 '정미소'를 구입했다. 서화작품만 구입하던 그의 첫 소장품이었다. 이번 전시에는 한

작가의 '별 내리는 신창동'과 '배롱꽃 떨어지는 소리' 두 작품이 나왔다.

“한 작가는 신창동 시리즈를 많이 그렸는데 대부분 블루톤이죠. 한데 이 그림은 차분한 느낌의 갈색 톤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줍니다. 언젠가 땅에 꽃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그린 한 작가 작품을 보고 꼭 누군가의 '별 내리는 신창동'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작가가 100호를 두 시간만에 그렸다고 해요. 땅에 흠뻑 젖은 줄도 모른채 말입니다. 바로 이번 전시작이죠. 이 교수와 담사를 함께 다니던 광주미술인공동체 사람들은



김경주 작 '점심'

은 볼로동 다리 넘어 일복식 건물에 모여 작업을 하곤 했어요. 객주구 시인, 정희송·서미라 등도 많았죠.”

전시에는 따뜻한 느낌의 정희송 작가 작품 '볼로동 다리'와 소박한 농촌 풍경을 그린 서미라 작가의 작품도 걸렸다. 또 황토와 먹으로 마감한 검은 화면에 붉은 닭의 모습이 인상적인 신창운의 '새벽'은 대학출업전에서 마음에 들어 산 작품이다. 봉투 2개를 마련해 하나는 그림값으로, 하나는 학비에 보태라고 준 기억이 난다.

눈독에 앉아 막걸리 한잔에 담배를 피우는 농부가 등장하는 이사범의 '그림포기 농사포기'는 꼭 '그리다 만 그림처럼' 보인다.

“그림 속 등장인물 중 한분이 자신의 형이라고 작가가 말하더군요. 한참 작품을 그리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사태가 터졌고 농민들의 상심이 컸던 시절이죠. '우리 형님 농사 다 지었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작가도 그림 그리길 멈춰 그리다 만 그림 자체가 작품이 된 거죠.”

신경호의 '당신의 창'은 박효선 연출가가 운영하던 민들레극장 이전비 마련을 위해 홍성담 작가가 기획한 전시회에서 구입한 여러 작품 중 하나며 이준석의 '화염광주', 하성흡·박문중·손장섭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또 남의 물건까지 다 팔아주던 여수 시장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김경주 작가의 '점심'도 눈에 띈다.

전시에는 당시 민중미술작가는 아니었지만 민중미술의 사실정신을 담고 있는 박은용·유영열·주홍의 작품도 함께 전시했다. 김 고문은 특히 수목의 농담만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히 잡아낸 '파장' 등 박은용의 작품에 애정을 드러냈다.

전시장에 걸린 글 '화연(畫緣) 따라 30년'에서 김 고문은 “시대와 호흡하는 작품을 고르되, 회화적 완성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것, 메시지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작품이 주는 울림이 깊고 오래가는 작품들을 구입했다”며 “전시작은 광주전남 민중미술 대표작이 아닌, 전적으로 내 개인적 취향에 따라 나와 인연이 닿은 작품들”이라고 적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희원 작 '별 내리는 신창동'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만족 최우수상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